

## 협회 임직원 춘계 체육대회 개최



우리 협회는 5월 20일(금) 서울 근교 청계산에서 2005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협회 임직원간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실시된 이번 춘계 체육대회는 협회 채화목 회장과 정중혁 부회장을 비롯,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모처럼 사무공간을 벗어나 등산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임직원간의 협력과 단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유관기관 동정

### 과학기술부

#### 원자력발전소 통합안전규제검사 시행

- 원전 사고·고장 발생 및 중복규제 등 문제점 해소 -

과학기술부는(부총리 겸 장관 및 明)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한 안전규제검사 업무를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던 원자력발전소의 2차계통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업무(정기검사, 사용전검사)도 앞으로는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게 된다.

※ 1차계통 : 원자로 및 방사성관련시설

2차계통 : 터빈 및 발전기 등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업무는 1차계통은 과학기술부에서, 2차계통은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에 안전규제업무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원전은 1, 2차계통이 연계되어 있고 사고·고장 발생시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안전성 확인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1, 2차계통에 대한 통합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원전의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위해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는 2차계통 안전규제업무를 과기부로 이관토록 결정한 바 있다.(제43차 국정과제회의, '04. 5. 20) 그 동안 통합안전규제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업무이관에 대한 합의를 거쳐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는 등 제반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번 통합안전규제는 '05년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영광원전 5호기 정기검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통합안전규제 시행과 병행하여 검사대상·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품질보증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계통·설비에 대해 단순 점검하는 방법에서 종합적인 계통·기능 중심으로 검사하며, 고장유발이 잦은 취약설비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원전 1, 2차계통에 대한 안전규제 체제의 통합으로 지금까지 안전규제의 이원화로 인한 사고·고장의 발생과 중복규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자력 사고시 방사선 피해자 신속 진료 - 원전주변 11개 병원을 비상진료기관 지정 -

과학기술부(부총리겸 장관 吳 明)는 '방사선진료기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6일(금)과 5월 30일(월) 두차례에 걸쳐 원전주변에 있는 11개 병원을 '제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피해자를 신속히 원전주변에 있는 제1차 진료기관(병원)에 이송하여 응급진료를 하고, 피해가 있으면 인근의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

2004년 3월 과기부에서 수립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 및 지원계획'에 의하여 원전주변에는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하고, 대도시는 종합병원을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에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1개가 지정되었고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14개가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방사선 피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방사선진료나 치료에 대한 장비 구입이나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기부는 매년 10억원을 지원하여 방사선비

상진료 장비구입, 해외연수, 방사선비상진료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원전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이 많은 지역에도 방사선사고를 대비하여 제1차 진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제1차 및 제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 • 제1차 기관(11개)

지방공사 삼척(강원도 삼척시), 경주병원(경북 경주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경북 구미시), 월레스기념 침례병원(부산시), 기장병원(부산시 기장군), 동강병원(울산시), 의료법인 성심종합병원(전남 여수시), 영광종합병원(전남 영광군), 영광기독병원(전남 영광군), 고창병원(전북 고창군), 천안의료원(충남 천안시)

### • 제2차 기관(14개)

서울대병원, 국군수도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국군대전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라병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제10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성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규제체제를 정립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자력안전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995년부터 매년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제10회 회의를 4월 28일(목)~29일(금) 양일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개최하면서 지난 10여년동안 원자력안전기술 정보회의는 안전기술 현안에 대한 원자력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기관 및 사

업자간의 활발한 기술정보 교류를 통하여 "원자력 안전성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터전이 되어왔다.

"원자력 안전성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부 권상원 원자력안전심의관 및 김선빈 원자력안전과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원자력연구소, 한전기술 등에서 원전의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및 안전규제에 관련된 약 600여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민간환경감시기구, 녹색연합 등의 시민

단체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본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 권상원 원자력안전심의관의 축사와 김선빈 원자력안전과장의 「2005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이 발표되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운원 안전규제부장의 「원자력 안전규제 현황 분석」 등이 발표되었다.

기술분과회의는 ▲제1분과 원자로안전해석 ▲제2분과 중대사고 평가 ▲제3분과 지진 및 구조건전성 ▲제4분과 계통평가 ▲제5분과 기계해석 ▲제6분과 금속재료 ▲제7분과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제8분과 방사선안전 및 폐기물관리 ▲제9분과 품질보증 등 총 9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가동원전 계속운전에 대비한 기계설비 안전성 증진 방안」 등 총 70여 편의 분과별 의제가 발표되었으며 분과별 주요 안전현안과 규제방향에 대하여 심도 깊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장기 가동 원전의 계속운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정부 및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1995년 제1회 회의에 이어 이번에 10회를 맞은 신원기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리더쉽이라는 것은 권위에 의한 강요나 공권력보다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규제자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며 수준높은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원자력의 안전성확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라며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관의 리더쉽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보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 중에는 각종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어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공고히 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도 많음을 지적하며 “금번 회의에서도 귀중하고 열띤 논의를 펼쳐 원자력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됨은 물론, 원자력 안전성 증진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회원사 등정

### 한국수력원자력(주)

#### 방사선보건연구원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열려 -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원장 김중순)과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은 방사선작업종사자



의 업무상질병에 대한 현행 과학기술부 고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